

1 장, 서론: 새로운 탐구의 문을 열며

스폰은 왜 이 글을 쓰는가?

- 신앙생활에서 두 경험의 충돌: ①예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②그에 대한 전통적 상징, 표현 형식으로부터 소외감.
 - 기독교의 핵심적 신조와 교리 (예. 성육신, 속죄, 삼위일체)가 세속적, 과학적 지식이 확장됨에 따라 무너짐.
 - 예수의 인간성과 유대인 신분을 읽을 수 있어야=> <이 히브리 주님> (This Hebrew Lord); <예수를 해방시켜라>(Liberating the Gospels: Reading the bible with Jewish Eyes) 집필.
- 성서(비평)학의 발달. 1834년 D.F.슈트라우스, <예수의 생애> 이후 새롭게 복음서 연구=> 역사적 예수 연구 시작. 교회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옴=> 근본주의 탄생. 교육받은 목회자들은 침묵으로 일관. (교인들이 깨우치면, 교회체제 유지가 힘들다고 봄.)
- 신화의 예수(Jesus of myth)와 역사의 예수(Jesus of history)를 분리시키는 작업. 신화적 부분은 예수의 본래 의미의 일부가 아니라, 나중에 덧붙혀진 첨가물(p. 23) [Q. 그런 이 첨가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? 이에 대해 스폰은 대단히 부정적이다. 이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=> 신학다시하기]

A. 주제(Thesis).

- 하나님 탐구는 나 자신의 정체성 탐구와 일치한다(42).

B. 문제점(Problems).

- 예수에 대한 전근대적 가설은 중세 교리의 산물(40). 안셀무스(Anselm, 1033-1109)의 대속론(代贖論)을 염두에 둔 듯.
- 제도적 교회가 공식화한 신조들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여 더 이상 “크리스천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? 정통적 크리스천(an orthodox Christian)의 의미는?

C. 논점(Argumentation).

- 명제적 진술이 영원한 진리를 완전히 포착할 수 없다 (p.39) << “[P]ropositional statement can never capture eternal truth” (p.9).
 - 체험자/설명자의 언어, 지식수준, 세계관 속에 예속. (=> 보충설명, ‘해석학적 삼각형’)
 - 궁극적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종교제도가 범했다.
- 접근, 연구방식은 성서비평학. (보그도 마찬가지. 성서연구는 신학의 기본)=> 마가, 마태, 누가, 요한복음 순서로

D. 평가(Critique).

- 스폰은 예수에 관한 설명(“신화들”)로부터 인간 예수를 분리하는 작업은 먼저한다. 그리고 남은 예수의 인간성(humanity)을 가지고 <비종교인을 위한 예수>를 재구성한다.
- 그렇다면, 성서와 전통(기독교 역사, 성서해석의 역사)을 강 무시하거나 멸시해야 하는가? 이것들도 시대적 요구, 시대정신(Zeitgeist)에 의한 당시 사람들의 표현이었다면, 그들의 체험을 되집고 동일시할 수 있어야 (정체성문제).

생각해 보기

1. 기독교인(크리스찬, 그리스도인)의 정체성은?
2. 나는 왜 (여전히) 그리스도인인가?